

정현, 세계랭킹 19위...쇼선수 4번째

ATP단식 세계랭킹 4계단 상승
1996년 5월생 만 21세 11개월만

‘한국 테니스의 희망’ 정현(22·한국체대)이 세계랭킹 20위의 벽을 깬다. 역대 아시아 남자 선수 4번째다. 2일(한국시간) 발표된 남자프로 테니스(ATP) 단식 세계랭킹에서 정현은 2주 전 23위에서 4계단 오른 19위에 이름을 올렸다. 정현은 비제이 암리트라지(65·인도), 파라돈 시차핀(39·태국), 니시코리 게이(29·일본)에 이어 역대 4번째로 세계랭킹 20위 안에 이름을 건 아시아 남자 선수가 됐다. 1993년생인 암스트라지는 19세 9개월이던 1973년 9월 세계랭킹 20위에 올랐다. 세계랭킹 20위 이내에 든 아시아 남자 선수 중 최연소로 이를 달성했다. 니시코리는 22세 1개월이던 2012년 1월 20위 이내로 올라섰

고 시차핀은 23세 5개월이던 2002년 11월 세계랭킹 20위 안으로 진입했다. 1996년 5월생인 정현은 만 21세 11개월에 20위 벽을 돌파해 암리트라지에 이어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톱20에 이름을 올린 아시아 남자 선수가 됐다. 역대 아시아 남자 선수의 최고 세계랭킹 기록은 니시코리가 보유하고 있다. 니시코리는 2015년 3월 세계랭킹 4위까지 올랐다. 시차핀은 9위, 암리트라지는 16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암리트라지와 시차핀은 모두 은퇴했다. 부상으로 대회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니시코리는 이번 주 세계랭킹에서 39위에 자리했다. 이날 막을 내린 ATP 투어 마

이애미 오픈에서 8강까지 오른 정현은 지난달 31일 귀국했다. 정현은 한국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이날 중순 출국, 2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ATP 투어 바르셀로나 오픈에 참가한다. 한편 이날 세계랭킹에서 라파엘 나달(32·스페인)은 로저

페더러(37·스위스)를 2위로 끌어내리고 1위로 올라섰다. 마린 칠리치(30·크로아티아)가 3위를 지킨 가운데 마이애미 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알렉산드르 즈베레프(21·독일)가 5위에서 4위, 그리고리 디미트로프(27·불가리아)가 4위에서 5위가 됐다.

뉴스스



박찬호, 장학재단 설립 이승엽에게 1억원 쾌척

“재단 도움 받아 좋은 선수 성장 모습 보는게 목표”

‘코리아 특급’ 박찬호(45)가 장학재단을 설립한 ‘국민타자’ 이승엽(42)을 위해 1억원을 기부한다. 이승엽이주장학재단은 2일 ‘박찬호가 우리 재단에 유소년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승엽이주장학재단은 8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미국에 체류 중인 박찬호는 매

니지먼트사를 통해 출범식날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찬호는 이승엽에 앞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박찬호장학회는 지난해 11월 20주년을 맞았다. 20주년 행사에 참석한 이승엽은 박찬호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은 선수들이 KBO리그를 누비는 모습에

감명을 받고 장학재단 설립을 마음 먹었다. 이승엽은 “박찬호장학회 장학생 중에 작년까지 같이 활약했던 선수들이 있다는 게 놀라웠다”며 “저마다 자신의 분야에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게 가슴에 와 닿았다. 이승엽이주장학재단의 도움을 받은 선수가 좋은 선수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또 하나의 목표이자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꿈”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KBO 퓨처스 리그 오늘 팡파르

전 경기 야간 열리는 서머리그 120경기로 확대

2018 KBO 퓨처스 리그가 3일 오후 1시 벽제(SK-경철), 화성(두산-화성), 이천(고양-IG), 문경(롯데-상무), 서산(KT-한화), 경산(KIA-삼성) 등 6개 구장에서 일제히 개막한다.

북부리그(경철·SK·화성·고양·IG·두산)와 남부리그(상무·KIA·kt·한화·삼성·롯데)로 나뉘어 진행되는 KBO 퓨처스리그는 동일리그 팀 간 12차전(홈·원정 각

6경기)씩, 인터리그 팀 간 6차전(홈·원정 각 3경기)씩 팀당 96경기, 총 576경기를 치른다.

올해 퓨처스리그 경기는 예년과 동일하게 전 경기가 낮 1시에 시작된다.

하지만 혹서기인 7, 8월 선수들의 건강 보호와 체력 안배를 위해 전 경기를 오후 4시로 편성했다. 서머리그 기간에는 평일 6시30분, 주말 6시 등 KBO리그와 마찬가지로 야간

경기로 열린다.

전 경기가 야간에 열리는 서머리그는 지난해 72경기에서 올해 120경기로 대폭 확대됐다.

1차 서머리그는 7월23일부터 8월 12일까지 KBO리그 구장에서 24경기(사직·광주·대구·마산 각 6경기), 퓨처스 구장에서 18경기(이천·서산·문경 각 6경기), 춘천, 군산, 기장 등 연고 외 지역 구장에서 30경기가 열린다. 이 기간 매주 목요일은 휴식일이다.

2차 서머리그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KBO리그 중단 기간인 8월21일부터 9월2일까지다. KBO 리그 구장에서 총 48경기(잠실 12경기, 문학·사직·수원·대전 각 6경기, 광주·대구·고



척·마산 각 3경기)가 개최된다.

KBO는 퓨처스리그 활성화를 위해 ‘KBO 퓨처스리그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퓨처스리그 경기일정과 경기결과, 순위, 기록 등 퓨처스리그 관련 서비스가 제공된다. 구급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뉴스스

손흥민의 골 욕심 또는 의욕...에릭센·알리 “패스했어야지”

EPL 32라운드 첼시전 3번째 골 농담 섞은 쓴소리

첼시를 뿌리치고 내년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확보에 바짝 다가간 토트넘이지만,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델레 알리는 손흥민의 골 욕심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토트넘은 1일 자정(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2017~201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32라운드에서 첼시를 3-1로 꺾었다. 손흥민은 선발로 나서 후반 29분까지 74분을 뛰었다.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인상적인 플레이로 알리의 세 번째 골을 이끌어내며 임무를 완수했다. 동료들의 농담 섞인 쓴소리를 들은 것도 세 번째 골 장면이었다.

손흥민은 오른쪽 측면을 완전히 무너뜨린 뒤 슈타지 연결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골키퍼가 쳐낸 공이 자신에게 흐르자 다시 왼발슛을 날렸다. 더 좋은 위치에 에릭 라멜라가 홀로 있었으나 손흥민은 패스가 아닌 직접 마무리를 선택했다. 이 공마저 골키퍼가 막았지만 알리가 마무리했다. 에릭센은 경기 후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상황을 조금 어렵게 만들었다”고 농담진 반했다. “물론 우리가 골을 넣었지만 민인 특점이 없었다면 패스를 하지 않은 손흥민에게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리 또한 “조금 짜증이 났다”고 고백했다. 골로 연결되지 했지



만 더 수월한 방법을 택하지 않은 아쉬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알리는 “손흥민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골을 살려내 내가 골을 넣을 수 있었다”고 동료

를 감쌌다. 한편 스카이스포츠는 손흥민에게 평점 7점을 부여했다. 에릭센과 알리는 8점을 받았다.

뉴스스

‘최고구속 160km’ 오타니 MLB 선발 데뷔전서 승리

60닝 3피안타 6탈삼진 3실점

메이저리그에서도 투타 겸업하는 오타니 쇼헤이(24·LA 에인절스)가 첫 선발 등판에서 승리투수가 됐다. 오타니는 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콜리시엄에서 열린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원정 경기에서 선발 등판, 60닝 3피안타(3점 홈런 포함) 6탈삼진 1볼넷 3실점 했다.

팀이 7-4로 승리하며 오타니는 메이저리그 선발투수 데뷔전에서 승리를 챙겼다.

오타니는 이날 99마일(약 159km)을 넘나드는 강속구를 앞세워 오클랜드 타선을 상대했다. 대부분의 패스트볼 구속이 95마일(약 153km) 이상을 기록했다.

1회 첫 타자 마커스 시미옌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등 삼진 2개를 속이내며 삼자범퇴로 출발했다.

특히 3번 타자 맷 올슨에게 초구부터 시속 99.6마일(160.3km)의 초강속구를 던지는 등 억박지르며 삼구 삼진으로 처리했다.

2-0으로 앞선 2회 스리런 홈런을 맞긴 했지만 이후부터는 단 1개의 안타만 내주는 등 안정적인 투구를 했다. 160km에 이르는 포심 패스트볼에 스피리더, 슬라이더, 커브 등을 섞어 던지며 너는 점수를 내주지 않았다.

에인절스 타선은 2-3으로 뒤진 5회 2점을 추가하며 재역전에 성공했다. 오타니가 마운드에서 내려온 뒤 7회 곧바로 3점을 보태며 승리 기회를 안겼다.

이날 총 92개의 공을 던졌다. 스



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콜리시엄에서 펼쳐진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승리투수가 된 오타니 쇼헤이.

트라이크는 63개였다. 땅볼 타구 6개, 뜬공 2개로 메이저리그 타자들보다 오타니의 공을 쉽게 공략하지 못했다.

시합경기 2경기 등판해 2%이닝 8실점 평균자책점 27.00로 부진하며 우려를 샀지만 데뷔전 인상적인 투구로 향후 등판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오타니는 지난달 30일 오클랜드와 정규리그 개막전에선 8번 지명 타자로 출전해 2회 첫 타석에서 메이저리그 데뷔 첫 안타를 신고했다.

오승환, 1이닝 무실점...토론토서 첫 세이브

오승환(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뉴욕 양키스 쌍포를 넘어 이적 후 첫 세이브를 신고했다.

오승환은 2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양키스와 경기에서 7-4로 앞선 9회 등판, 1이닝 1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지난달 30일 개막전 등판(1이닝 무실점) 이후 3일 만에 마무리 로베르토 오수나를 대신해 마운드에 올라 뒷문을 확실히 걸어 잠갔다.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두 번째 등판 만에 첫 세이브를 올리는 동시에 메이저리그 통산 40호째 세이브를 달성했다.

토론토는 3-4로 뒤진 8회 저스틴 스톱의 역전 민투홈런에 힘입어 경기를 뒤집었다. 9회 승리를 굳히기 위해 연투에 걸린 오수나 대신 오승환을 마운드에 올렸다.

오승환은 선두타자 게리 산체스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4구째 바깥쪽으로 빠지는 79.1마일(127km) 슬라이더를 던져 산체스의 방망이를 이끌었다.

브렛 가드너에게는 초구 98.2마일(150km)의 포심 패스트볼로 스트라이크를 잡은 뒤 2볼-1스트라이크에서 우익수 뜬공으로 처리했다.

지난 시즌 아메리칸리그 홈런왕



애런 저지를 상대로는 두 차례 헛스윙을 유도했으나 아쉽게 좌전안타를 내줬지만 올 시즌 양키스에 합류한 거포 지안카를로 스톱텐을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토론토는 선발 마커스 스트로먼이 50이닝 4실점하고 마운드를 내려간 뒤 불펜진이 너는 실점하지 않으며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타선에선 스톱이 홈런 두 방 포함 4타수 3안타 6타점으로 대활약을 펼쳤다. 스톱은 1-4로 뒤진 7회 추격하는 투런 홈런을 때린 뒤 8회에는 경기를 뒤집는 역전 결승 안타 홈런 날려 승리의 주역이 됐다.

농구 두경민·전성현, 상무 입대

국가대표 전준범 탈락

프로농구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두경민(DB)을 비롯한 6명의 국군체육부대 입대가 확정됐다. 국군체육부대는 2일 서류전형, 신체검사, 체력측정, 인성검사 등을 바탕으로 두경민 등 농구부 6명을 선발했다.

2017~2018시즌 정규리그 MVP 두경민은 예상대로 입대를 확정했다. 이재도와 전성현(이상 인삼공사), 서민수(DB), 김지후(KCC), 이



동명(삼성)도 입대한다. 당초 알려진 7~9명보다는 적은 인원이다. 입대가 유력해 보이는 국가대표 전준범(현대모비스)은 탈락했다.

다. 합격자들은 다음달 14일 입대한다. 전역 후 2019~2020시즌 정규리그 중반에 복귀가 가능하다.